

장성 축령산 편백숲, 81개국 국제 환경교육장 된다

장성군, 국제비영리단체 환경교육재단과 국제환경교육 업무협약 국내 첫 국제숲배움터 인증... 지속가능한 환경교육 시스템 구축

장성군이 축령산 편백숲을 국제 환경교육장으로 지정한다.

장성군은 국제비영리단체 환경교육재단과 손을 잡고 축령산 숲배움터를 세계 81개국의 환경교육장으로 활용하기로 했다고 7일 밝혔다.

군은 이를 위해 최근 축령산 숲배움터 장성하모니센터에서 국제비영리단체인 환경교육재단(FEE)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식에는 김한중 장성군수와 다니엘 세퍼 환경교육재단 대표, 강대영 한국사무소 이사장, 고재진 장성군의회 의장 등이 참석했다.

환경교육재단은 1981년 덴마크 코펜하겐에서 설립돼 전 세계 81개 회원국과 연계된 환경인증단체다.

장성군과는 축령산 편백숲 교육 프로그램 '내 꿈 심고 나무 심고'가 국내 최초로 국제숲배움터 인증

(LEAF)을 받으며 인연을 맺었다. 인증은 장성군 농촌신활력플러스사업 일환으로 추진됐다.

'내 꿈 심고 나무 심고'는 축령산 편백숲에서 펼쳐지는 환경 교육 및 체험 활동이다. 아이들이 마을 어르신과 함께 편백나무 씨앗을 채집한 뒤 발아 과정부터 식재까지 2~3년에 걸쳐 참여하게 된다.

어린 묘목에는 나무를 심은 아이의 이름과 이루고 싶은 꿈, 식재 날짜를 적은 이름표가 달린다.

훗날 아이가 어른이 되어 꿈을 이뤘을 때 어린 묘목도 울창한 나무의 모습으로 숲을 지키며 사람과 숲이 함께 성장해 간다는 의미를 지녔다.

교육 참여 후에는 유네스코에서 인증한 국제숲배움터 교육 수료증을 받을 수 있다.

축령산 편백숲은 주민 소득 향상에 기여하고 있다. 좁은 간격으로 심어서 빼곡해진 편백나무 가지

들을 마을 주민들이 수확해 소득원으로 삼는다. 고향의 주민들도 참여할 수 있어 호응이 높다.

대외적으로도 가치를 인정받고 있다. 장성군 숲배움터는 2021년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우수사례로 선정되었으며, 지난해 6월에는 유럽에서 열린 환경교육재단 국제총회에 초청되기도 했다.

군은 청소년·지역민 대상 환경교육 프로그램을 지원할 계획이다. 또 유엔(UN)의 지속가능한 환경교육 시스템 구축에도 힘을 보탠다.

협약에 따라 환경교육재단은 국제 네트워크를 활용한 인적 지원과 프로그램을 장성군에 제공하고, 에코스쿨 인증학교 재학생에게 국제 프로그램 참여 기회도 선사한다. 한국에서 총회를 열게 될 경우에는 장성군에서 우선적으로 개최한다.

김한중 장성군수는 "이번 협약이 국제 환경교육을 선도하는 장성군으로 도약하는 중요한 기반이 되어줄 것이다"며 "미래 꿈나무인 학생들이 환경 분야에 보다 관심을 갖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장성=김용호 기자 yongho@kwangju.co.kr



김한중(오른쪽) 장성군수가 지난 3일 다니엘 세퍼 환경교육재단(FEE) 대표와 국제환경교육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있다. (장성군 제공)

나주시 빈집 새 단장 '제1호 귀농인의 집' 입주자 모집

귀농귀촌인 2년간 보금자리 제공

나주시가 왕곡면 마산마을의 빈집을 새로 단장해 첫 입주자를 모집한다.

나주시는 '농촌 활력 빈집재생' 사업으로 왕곡면 화정리 마산마을 빈집 개선공사를 마무리하고 오는 10일까지 입주자를 모집한다.

새 단장을 마친 빈집의 입주자는 앞으로 2년간 귀농·귀촌을 위한 보금자리로 이곳을 이용할 수 있다.

나주시는 예비 귀농·귀촌인들이 정착 과정에서 빈집을 임시 주거시설로 쓸 수 있도록 올해 총 7곳을 새로 단장할 계획이다.

이번 '1호 귀농인의 집' 재생에는 나주시 자체 예산 4000만원이 투입됐다.

이곳은 주택 53.2㎡, 대지 460㎡ 규모로 방 3곳, 부엌·화장실 각 1곳 등을 갖췄다. 공사에서는 주택 실내와 외부 벽면 개선 등이 이뤄졌다.

나주로 귀농·귀촌을 희망하고 실제 거주·정착할 예비 귀농·귀촌인이라면 신청할 수 있다.

입주자는 보증금 100만원과 월 임차료 20만원(공과금 별도)을 해당 마을협의회 통장으로 내면 된다. 이 비용은 마을 율화 사업 재원으로 쓰일 예정이다.

입주민은 사용 약정일로부터 2년까지 살 수 있고, 해당 귀농인의 집은 앞으로 5년간 임시 보금자리로 사용된다.

자세한 내용은 나주시 누리집 공지사항 '귀농·귀촌인의 집(마산마을) 입주자 모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편 나주시는 올해 빈집 7곳을 새 단장을 계획하고, 각 마을협의회로부터 빈집 개선공사 신청을 받고 있다.

이달 현재 빈집 11곳이 신청했지만, 너무 오래



나주시가 빈집을 새로 단장해 예비 귀농·귀촌인에 저렴하게 빌려주는 '농촌 활력 빈집재생' 사업 1호 주택이 왕곡면 화정리 마산마을에 준공됐다. (나주시 제공)

되거나 마지기 주택으로 조사돼 3곳만 새 단장 대상에 뽑혔다.

왕곡면 마산마을에 이어 다도면 방산마을, 세지면 성산마을 빈집에서 개선공사가 진행되고 있다.

빈집재생 사업 추가 신청은 시청 누리집에 게시된 신청서류를 작성해 오는 25일까지 나주시 농업기술센터 농업정책과(농촌활력팀) 또는 담당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제출하면 된다.

신청 대상은 마을 내 빈집을 확보해 소유자와 5년간 주택 무상 사용 승낙 협약을 체결한 마을협의회 또는 비영리사회단체다.

읍·면 지역과 동 지역(주거·상업·공업지역 외 읍·

도지역)의 빈집 새 단장 후 입주가 가능한 수준의 주택이어야 하며 다세대·빌라 주택은 제외된다. 신청 후 선정되면 개소당 최대 4000만원까지 주택 공사비가 지원된다.

윤병태 나주시장은 "해마다 증가하는 농촌 마을 빈집을 귀농·귀촌인 임시 주거시설로 조성해 마을 경관 개선과 활력 넘치는 농촌을 구현해가겠다"며 "빈집재생과 더불어 귀농·귀촌 시범마을 조성, 농촌공간정비사업, 농촌에서 살아보기, 영농 현장실습 등 귀농·귀촌인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한 단계별 사업을 추진해가겠다"고 말했다.

/나주=김민수 기자 kms@kwangju.co.kr

공동체 소통·협력 창구

'나주시 마을넷' 창립 총회

나주시가 마을공동체 간 유기적인 협력을 위한 소통 창구를 개설했다.

나주시공익활동지원센터는 최근 센터 대회의실에서 공동체 대화모임인 '나주시 마을넷' 창립 총회를 가졌다. (사진)

마을넷 창립은 지난달 전남마을공동체지원센터와의 찾아가는 전남마을공동체 네트워크 간담회 안전으로 상호 토론을 통해 이뤄졌다.

토론회는 전남마을공동체 16곳 단체·나주시지역 공동체 21곳 단체 대표와 실무자가 참석, 공동체 간 네트워크 형성 및 대화모임 구성과 활성화방안에 대한 심도 있게 논의했다. 논의 결과물인 나주



시 마을넷은 지역공동체활성화 주민참여공모사업·마을공동체활동지원사업 대상자 간 소통 창구가자 정보교류의 장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초대 마을넷 회장은 이종은 읍문사랑공동체 대표가 선출됐다. 마을넷 소속 단체들은 상호 협력을 통해 나주시지역 공동체 사업 발굴·환경 개선 사

업 등 사회공헌활동을 강화할 계획이다.

나주시 관계자는 "우리 지역 공동체들이 뜻을 모아 하나 되는 네트워크를 결성하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한다"며 "마을넷을 통해 공동체 활동 성과를 서로 공유하고 격려하며 화합의 마중물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나주=손영철 기자 ycon@

담양군, 곳곳에 숨은 기록유산 발굴한다

10월 31일까지 수집 공모전 응모

담양군이 지역 곳곳에 숨은 기록유산 발굴에 나선다.

담양군은 지역의 기록유산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수집하기 위해 '담양군 민간 기록물 수집 공모전'을 개최한다고 7일 밝혔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 두 번째로 개최하는 이번 공모전 주제는 '기록, 공유, 그리고 함께 나아가다'로 민간 기록물의 기증과 공유를 통해 보다 발전된

미래로 함께 나아가자는 의미를 담았다.

수집 대상은 개인이나 단체가 소장한 1999년까지의 기록물로 담양의 변천 및 발전사, 생활상 등을 엿볼 수 있는 문서, 책자, 사진, 포스터, 배지, 훈장 등 모든 유형의 기록물이다.

응모 기간은 오는 10월 31일 까지다. 담양 관련 기록물을 소장하고 있는 국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응모는 기록물 원본을 지참해 가까운 읍면사무소에 방문하거나 군 홈페이지에서 신청서를 내려 받아 작성한 후 기록물 원본과 함께 담양군청 기록

관으로 우편을 통해 접수하면 된다.

응모기록물에 대한 심사를 거쳐 입상작을 선정하며 입상자에게는 상장과 함께 최대 100만원의 상금을 수여한다.

수집 기록물은 디지털화 후 담양군 기록관 서고에 영구 보존되며 군은 이를 군민과 공유하고 기록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지난해 수집된 기록물과 함께 내년에 개최 예정인 '담양군 기록물 전시회(가칭)'에 전시할 예정이다.

담양군 관계자는 "공모전에 참여하는 것만으로도 의미가 있는 일기에 여러분의 기록을 꺼내 공유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담양=한동훈 기자 hdh@kwangju.co.kr

강진군 '재활용 분리마당' 6곳 추가 설치

쓰레기 분리 배출 거점 시설

강진군이 재활용 가능한 쓰레기를 분리 배출할 수 있는 '재활용 분리마당'을 6곳에 추가 설치했다고 7일 밝혔다.

설치된 곳은 강진읍 4곳, 군동면 1곳, 성전면 1곳 등이다.

이달까지 총 20곳에 재활용 분리마당이 설치됐으며, 강진군은 올해 총 8곳에 재활용 동네마당을 설치할 계획이다.

앞으로 읍·면사무소에서 설치 신청을 받아 이용 주민 수와 접근성, 지면 상태, 통행 불편사항, 관리자 지정 여부 등을 검토해 2곳을 추가 선정한다. 나머지 2곳은 오는 10월 말까지 설치할 예정이다.

재활용 동네마당은 요일에 상관없이 종이, 플라스틱, 캔·병류 등 재활용품을 품목별로 구분해 상시 배출할 수 있는 거점 배출시설이다.

반응형 감시카메라가 설치돼 올바른 분리배출 요령을 안내하며, 불법 투기를 감시할 수 있다.

강진군은 전담 관리자를 2명 투입해 재활용 동네마당을 쾌적하게 관리할 계획이다. 이번 사업을



강진읍 남포마을회관에 설치된 '재활용 동네마당'. (강진군 제공)

통해 올바른 재활용 문화가 정착될 것으로 강진군은 기대하고 있다.

정재영 강진군 환경축산과장은 "재활용 동네마당은 단순히 쓰레기를 버리는 장소가 아닌 군민의 쾌적한 생활환경 개선을 위한 공간"이라며 "생활속 분리배출 실천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깨끗한 강진 만들기에 동참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강진=남철희 기자 chou@kwangju.co.kr



'16회 정남진 장흥 물축제'를 마무리한 지난 6일 김성(가운데) 장흥군수가 축제 수익금 6000만원을 경북 봉화군과 희망브리지 전국재해구호협회에 전하고 있다. (장흥군 제공)

장흥군 정남진 물축제 수익금 6000만원 기부

장흥군은 '16회 정남진 장흥 물축제' 12일간 장정을 마치고 수익금을 호우 피해 복구를 위해 기탁했다고 7일 밝혔다.

장흥 물축제는 탐진강과 편백숲 우드랜드 일원에서 지난달 26일부터 이달 6일까지 진행됐다.

장흥군은 물축제 수익금 3000만원을 경북 봉화군에, 3000만원은 희망브리지 전국재해구호협회에 전했다. 물축제 수익금은 해마다 어려운 이웃을 위해 기부되고 있다. 봉화군은 지난달 집중호우 피해를 겪으며 언어축제를 취소했다.

장흥군은 축제 기간 체험 비용을 1000원에서 7000원까지 매겨 방문객들이 알뜰하게 축제를 즐

길 수 있도록 했다. 지난달 26일 치른 '살수대첩' 거리 행진에는 역대 최대 규모인 1만명 넘는 구름 인파가 몰렸다.

이번 물축제에서는 안전사고 없이 축제장 6곳에 대형 그늘막과 야외 탁자를 설치해 이용객들로부터 호응을 얻었다.

김성 장흥군수는 "올해는 대한민국 여름 대표축제로서 물축제가 한 단계 더 성장한 모습을 발견했다"며 "물축제를 찾아준 많은 관광객과 축제의 성공을 위해 함께 땀 흘린 자원봉사자와 지역민, 공무원 모두에 감사의 전한다"고 말했다.

/장흥=김용기 기자 중부취재본부장 kykim@

함평군 '로컬푸드 판매대' 11곳 확대 개설

2025년까지...농협 등과 협약

함평군이 지역 농산물 판로 확대를 위한 '로컬푸드 판매대'를 오는 2025년까지 11곳 설치할 계획을 세웠다.

함평군은 농협 함평군지부와 지역 농·축협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농산물 판로 확대 개설 상생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최근 맺었다.

협약식에는 이삼익 함평군수와 이광재 농협 함

평군지부장 등이 참석했다.

함평군은 올해 지역 농협 하나마트 3곳을 대상으로 로컬푸드(직거래 농산물) 판매를 지원하기로 했다.

이삼익 함평군수는 "이번 협약을 계기로 함평 농특산물이 확대 판매돼 농업인들의 소득 증가가 기대된다"며 "앞으로 다양하고 안정적인 유통 판로 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함평=한수영 기자 hsy@kwangju.co.kr